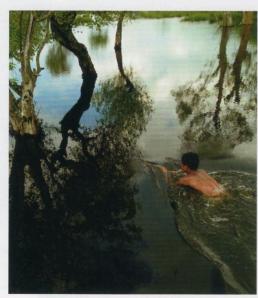


# August 2014 Vol 304



# PHOTO ART MAGAZINE

www.photoart.co.kr



표지 | 양종훈 作 동티모르

# **EDITOR'S NOTE**

20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글·윤세영

#### WIDE INTERVIEW

21 양종훈 | 글·윤세영

#### PHOTOART GALLERY

32 송영숙 | Instant Meditation

40 POLIXENI PAPAPETROU | The Ghilles

#### **PHOTO NEWS**

44 황규태의 사진 이후의 사진 | 글 · 윤세영

### **OVERSEAS ISSUE**

**50** 2014 아를 사진축제 | 글·구본창

# **PEOPLE**

56 사진 기획자와 만남 7 | 최연하 | 글 · 신지혜

60 인터뷰 | 독자와의 만남 8 | 조영숙, 황연식 | 글·신지혜

## SPECIAL ISSUE

·**75** 사진과 함께 즐기는 휴가지 5 | 글 · 정리 신지혜



동강사진박물관 제 1, 2 전시실 2014.7.18-9.21 033-375-4554 2014 동강국제사진제 특별기획전 **The Ghilles** 

폴리제니 파파페트로 POLIXENI PAPAPETR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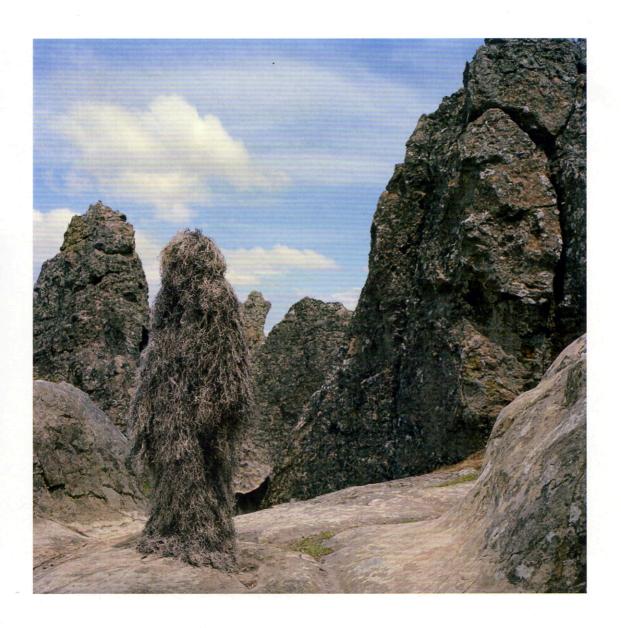
길레스(The Ghilles, 2013)는 정의할 수 없고, 대지 밖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듯한 의인화된 존재에 초점을 둔다. 이 불길한 느낌의 조각상 안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내 아들이 길리(Ghillie) 의상(원래는 사냥이나 전쟁을 목적으로 발명된 위장복)을 입은 채 들어가 있다.

길레스(The Ghilles)는 소년이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 단체라는 위장복을 입게 되는 소위 어린 시절의 굴복을 조명한다. 이 사진들은 사춘기 소년들이 어떻게 내면의 세계와 바깥 세상의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타협하는지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한다.

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변장 도구, 마스크와 의상 등은 어린이들을 늙은이로, 동물로 그리고 심지어는 식물의 형태로 변화시킨다. 이 같은 성장과 쇠락의 모습은 잔잔한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이 같은 변장놀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우리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함과 동시에 그들이 맡는 역할과 그들이 사는 공간 또한 성장하고 변화하여, 역사와 문화의 한계를 초월한다.

내 사진들은 어린 시절이 어떻게 어른들의 세계와 연관되는지를 증명한다. 이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진 무의식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들의 상상력 속에 깃들어 있는 사회적 차원을 넘는 웅장함에 대한 고찰이다.





폴리제니 파파페트로는 1960년 멜버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거주 중이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역사와 현대 문화, 정체성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진예술가다. 파파페트로는 모나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RMIT대학교에서 미디어예술 석사, 멜버른대학교 LLB/BA를 취득했다. 2009년 조세핀 울릭&빈 슈베르트 사진 어워드(Josephine Ulrick & Win Schubert Photography Award)를 수상했다.

2013년 컬럼비아에서 열린 포토그라피카 보고타에 호주 대표로 참가하였고, 2010년에는 브라티슬라바 사진의 달(European Month of Photography)과 아테네 사진축제에서 호주를 대표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시드니호주사진센터와 멜버른현대사진센터에서 전시되었다. 도쿄국립미술관,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 한미사진미술관, 제 3회 포토케, 메사추세츠드코르도바박물관 및 조각공원(De Cordova Museum and Sculpture Park), 샌디애고사진예술박물관, 뉴욕아퍼처갤러리(Aperture Gallery), 몬트리올 사진의 달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파파페트로의 작품은 호주 국립미술관, 빅토리아국립미술관, 시드니현대미술관, 퍼스에디스코완대학교, 멜버른모나쉬시립미술관, 세인트피터즈버그 미술관 등에 소장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문화예술진흥원(Australia Council of the Arts)과 해당 기관의 예술자금 지원, 자문 기관 등을 통해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